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 1996~2000

정진식(Jin-Sik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3. 연구논문의 주제별 동향 분석 |
| 1. 1 연구의 개관 | 4. 타 학문분야의 주제의존도 분석 |
| 1. 2 연구의 목적 | 5.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와 주제영역별 변화 |
| 1.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결론 |
| 1. 4 선행연구 | |
| 2. 수집자료의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 학문과의 주제 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인용패턴을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이용, 연구의 동향과 변화를 대응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정보학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학문의 이론 및 응용기법의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 관련 전산학이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S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theme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disciplin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other to analyze general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Methods used for the study is subject analysis of the general articles and citation analysis by correspondence analysis of SPSS. This study was done to apprehend the general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result, most researchers have studied on library related information science, in the future research trends is forecasting to computer-related study.

키워드: 연구동향, 인용분석, 핵심학술지, 핵심주제, 문헌정보학

* 본 논문은 200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jschung@hansung.ac.kr)
접수일자 2001년 8월 22일

1. 서론

1.1 연구의 개관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일 또는 체계화된 지식을 학문이라 정의한다. 이를 시대사적으로 조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론의 빈곤과 방법론의 비과학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나 하는 논의와 비판이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다(椎名六郎, 1960).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컴퓨터의 출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보학은 인간의 지능 활동을 최대한으로 효율화시키는 새로운 과학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학문과 사회전반에 충격적인 대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도서관학에서는 부득불 이러한 정보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체계화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헌정보학은 지적문화재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이용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인 봉사활동의 체계를 연구하는 도서관학과 정보의 능률적인 생산과 전달 및 그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과학적 제어수단을 연구하는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정필모, 2001). 문헌정보학에 대한 정의를 기술해 보면 Egan(1955)은 사회적 지식체계 및 기술과 관련된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Lynch(1984)는 실용적 연구와 서지학적 연구, 학문적 연구 및

과학적 연구로 구분하면서 이의 실용적 연구는 정보를 이용한 문제해결로, 서지학적 연구는 기존 견해들의 정리로, 학문적 연구는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구성 그리고 분석으로,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정보유통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일종의 종합과학인 정보학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정보학에 대해서는 Taylor(1966)와 Borko(1971)의 정의를 들 수 있다. Taylor는 정보학을 정보의 본질과 행동,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요인 및 최적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가지도록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정보의 발생, 수집, 조직, 축적, 검색 등 변환 및 이용에 관련된 지식의 총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Borko는 정보학을 수학, 시스템설계, 정보처리개념 등의 응용을 연구하는 이론적인 학문인 동시에 사서, 논리학자, 수학자, 행동과학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포괄하는 응용학문이며 학제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두 정의를 분석해 보면 양자가 정보 또는 지적문화재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도서관학은 문화적,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중시하고, 정보학에서는 정보의 능률적인 생산과 과학적 제어수단을 중시한다는 측면에 차이를 들 수 있다. Busha와 Harter(1980)는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들의 상당수가 질적으로 떨어지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Martyn과 Lancaster(1981)도 초기에 밝혀진 문헌정보학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들이

연구로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열(1992)은 연구방법에서 너무 양적연구에 중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연구라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문헌들과 도서관 현상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처리과정은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나 행위의 본질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는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역적인 관찰과 제한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일반적이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편협하게 호를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최근에 발표된 정보학분야가 결합된 학문으로 관찰 가능한 모든 사실이나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편타당성이 있는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형성된 학제적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Hoyt(1969)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주제영역을 ①문헌정보학 ②정보학 ③전산학 ④데이터 처리 ⑤정보학이나 전산학에서의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 이다. 근 50 여년 동안 국내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도서관학 학문의 내용은 물론 도서관 실무환경에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촉구

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분야에 관한 연구들도 시대적 변천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들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또 학문의 주류는 어떤 유형의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분야의 주제영역과는 어느 정도 의존관계에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게 될 것이다.

1. 2 연구의 목적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회지는 학회의 성격과 규모 및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규모의 회원을 확보하고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학회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등이 있으며, 2000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1년 3월에 학회지 제1권 1호를 창간한 문헌정보학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발간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문헌정보학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추세를 밝히고, 인용된 핵심학술잡지 분석을 통하여 타 학문과의 관계성을 조사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 성격과 핵심주제 및 연

구동향을 시대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학문의 흐름을 분석하자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전반적인 학문의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학술잡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학술잡지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공식매체로서 최신정보원인 동시에 한시대의 여론이나 사회의 조류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학문의 역사적 흐름이나 발전단계를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 학술지라 할 수 있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학회기간에는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두 학회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5년 동안 학회지에 수록된 339편의 논문과 이 논문들이 인용한 8,371건을 인용문헌의 형태별, 언어별로 분석하였고, 이 가운데 학술잡지를 별도로 뽑아서 본 논문이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주제와 인용문헌의 주제의존도 및 핵심잡지, 학제적 구조 변화 등을 계량서지학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논문의 전개형식은 서은경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며, 조찬식(1999)의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과 서은경(1997)의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에서 산출된 연구결과를 기저로 해서 년도별 추이를 통한 학문의 성격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1. 4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을 비롯해서 이론개발과 연구방법 등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1993년에 문경민에 의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사공 철, 박성민(1994)에 의한 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이, 그리고 신동민(1996)이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수집행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상완, 조인숙(1996)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의 4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자, 논문주제, 참고문헌 이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대학도서관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학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정보검색과 KORMARC가, 서지학분야의 주제분포에서는 고찰자와 판본학을 포함한 고서지 분야가 가장 강조되었음을, 논문의 유형에서는 독창적인 연구가, 언어별 분포에서는 영어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서은경(1997)도 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의 정보관리학회지와 미국의 JASIS(1984~1996)를 대상으로 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과 정보학 연구의 타학문 주제의존도, 학제적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자동문헌 분석과 정보검색 그리고 응용분야가 정보학자들의 주요 연구관심사임을 밝힌바 있다. 정동열(1999)은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등 3개 학회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을 창간호부터

1992년까지 조사하여 연구추이와 주제, 분석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조찬식(1999)은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연구의 양과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서베이 연구가 자주 이용된 점과 통계기법을 이용한 계량정보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최희곤(1999, 2000)은 1957년부터 1997년까지 출판된 문헌정보학분야의 단행본 767종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바 있으며, 또 SSCI에 등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영향력이 구미지역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것과 세계속의 문헌정보학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학술지 보다는 SCI나 SSCI와 같은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에 투고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성희(2000)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를, 구분영(2000)은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고찰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배순자(2001)에 의한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외의 경우는 Pentz(1981)가 문헌정보학 학문의 구조와 학제적 성격을 규명하여 회계학과 경영학 분야가 가장 주된 인접 학문임을 발견했다. Grover와 Glazier(1986)은 문헌정보학 이론 개념정립이라는 그의 연구에서 모든 학문체계는 현상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문의

발전과 변화는 내면적으로 상호연관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형화된 현상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생성해 내는 과정을 밝혔다.

Feehan(1987)은 정보학분야를 일반적 연구, 전문적 연구, 이론적 연구, 응용적 연구, 기타 연구를 토대로 JASIS의 1990에서 1993년 사이의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영역을 조사하였다. 문헌정보학의 연구주제 동향 분석에서 Atkins(1988)는 학자간 또는 문헌간의 교류를 규명했으며, Houser(1988)는 정보검색과 계량서지학이 미국 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를 밝혔다. 또 Bracken(1989)은 문헌정보학분야의 13개 학술지에 게재된 인용문헌을 분석하고 교육학, 심리학, 영문학이 인접분야의 학문임을 제시하였다. Jaervelin과 Vakkari(1990)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을 정보이론, 문헌정보학 교육 등 12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2. 수집 자료의 분석

2.1 인용문헌의 언어별 분석

두개 학회지에 게재된 339편의 논문에서 인용한 8,371개의 인용문헌을 년도별,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년도별 추이를 보면 영어권 문헌은 1966년부터 1999년까지는 66.4%, 67.1%, 70.0%, 74.2%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62.7%로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어 문헌은 31.3%, 30.7%, 28.0%, 24.5%로 인용빈

도가 매년 줄어들었으나 2000년에는 35.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영어권 문헌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영어권 문헌이 68.0%인데 비해 한국어 문헌은 30.0%로 영어권 문헌의 약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학문이 아직도 이론이 빈곤하고 방법론이 비과학성을 면치 못한 채, 지나치리만큼 외국문헌에 의존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2 인용문헌의 형태별 분석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학회지에 인용된

문헌의 연도별 분포는 <표 2>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정기간행물이 전체의 35.9%로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단행본 33.3%, 웹 12.5%, 학회지 7.3%, 학위논문 5.2%순이며, CD-ROM이 전혀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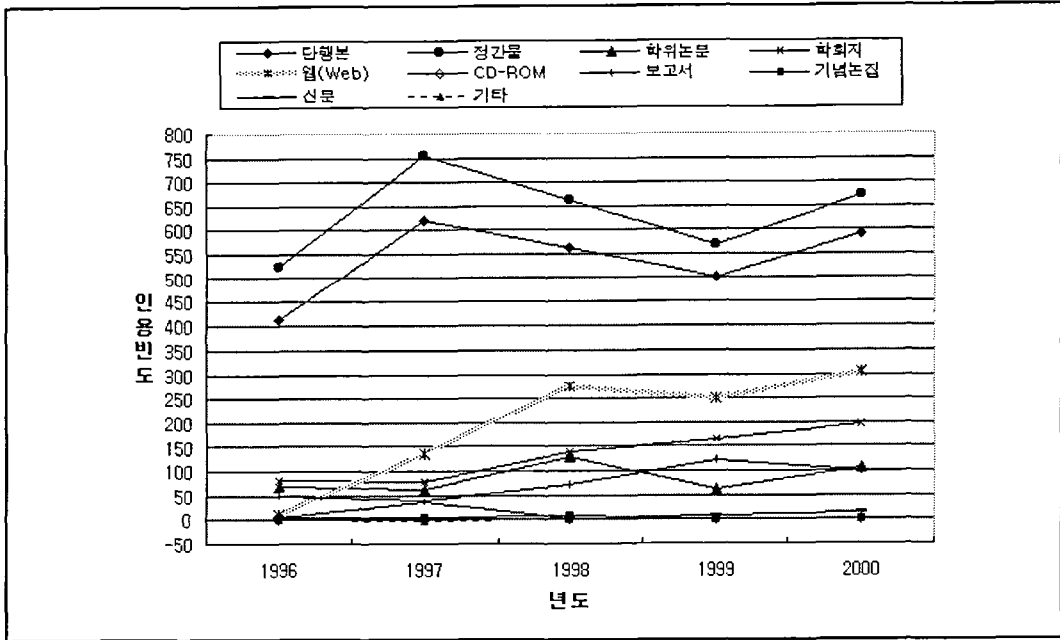
대다수의 국내 학자들이 외국문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위논문(국내 72.8%, 국외 27.1%)과 학회지(56.4%, 국외 43.5%)에서 만든 국내자료의 인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현상은 Web과 학회지와 보고서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이후부터

<표 1> 인용문헌의 연도별/언어별 추이(%)

연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기타	계
1996	346(31.3)	735(66.4)	19(1.7)	4(0.4)	2(0.2)	-	1106
1997	533(30.7)	1167(67.1)	18(1.0)	9(0.5)	5(0.2)	6(0.3)	1738
1998	531(28.0)	1327(70.0)	23(1.2)	6(0.3)	7(0.4)	-	1894
1999	411(24.5)	1242(74.2)	18(1.0)	2(0.1)	1(0.1)	-	1764
2000	704(35.9)	1229(62.7)	22(1.1)	-	4(0.2)	-	1959

<표 2> 인용문헌의 연도별 분포

형태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내/외	계		
단행본	151	304	455	195	425	620	218	373	591	136	365	501	262	358	620	962	1825	2787
정간물	100	390	490	165	556	721	123	540	663	72	486	558	87	488	575	547	2460	3007
학위논문	45	22	67	50	12	62	91	37	128	46	17	63	85	30	115	317	118	435
학회지	23	27	50	57	20	77	77	55	132	76	79	156	111	84	195	344	265	609
웹(Web)	0	10	10	7	162	169	30	251	281	27	245	272	22	292	314	86	960	1046
CD-RO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고서	15	15	30	16	37	53	28	63	91	21	99	120	30	97	127	110	311	421
기념논집	2	0	2	2	0	2	7	0	7	0	0	0	0	0	0	11	0	11
신문	1	1	2	33	1	34	1	0	1	5	0	5	10	3	13	50	5	55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337	769	1106	525	1213	1738	575	1319	1894	383	1291	1674	657	1302	1959	2477	5895	8371



〈그림 1〉 인용문헌의 연도별 분포

Web자원의 인용율이 0.9%에서 16.1%, 26.8%, 30.0%순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회지 또한 4.4%에서 12.6%, 21.6%, 25.6%, 32.0%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자들이 폭넓은 정보의 확장과 함께 속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회지가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연구논문의 주제별 동향분석

문헌정보학은 역사가 장구하고 그 내용상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영역과 체계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논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논문에 대한 주제분류는 Jaervelin과 Vakkari (1990)의 분류기준을 사용하되 정보학분야의 ISA를 참고로 해서 10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의 소주제로 세분화시켜서 분석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보처리 영역이 30.7%로 가장 활발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헌정보학 일반 12.8%, 정보학분야의 참고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이 각각 11.4%, 도서관경영(관리) 11.3%순으로 나타나 정보학분야의 정보처리 영역이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생성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출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이전까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조찬식(1999)과 서은경(1997)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문헌

〈표 3〉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주제영역분포도

주제명 \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자료조직	48(8.9)	54(6.8)	74(9.3)	41(5.8)	60(7.8)	277(7.7)
도서관경영(관리)	47(8.7)	140(17.5)	76(9.5)	68(9.5)	79(10.3)	410(11.3)
참고정보서비스	69(12.8)	112(14.0)	88(11.1)	61(8.6)	82(10.6)	412(11.4)
문헌정보학일반	35(6.5)	163(20.4)	88(11.1)	79(11.0)	98(12.7)	463(12.8)
연구방법론	38(7.0)	24(3.0)	36(4.5)	38(5.3)	36(4.7)	172(4.7)
정보생성	10(1.9)	18(2.3)	18(2.3)	33(4.6)	10(1.3)	89(2.5)
정보인식	52(9.6)	29(3.6)	46(5.8)	98(13.7)	38(4.9)	263(7.3)
정보처리	176(32.6)	172(21.6)	272(34.2)	212(29.7)	278(36.1)	1110(30.7)
정보시스템	64(11.8)	83(10.4)	97(12.2)	78(10.9)	89(11.6)	411(11.4)
서지학	1(0.2)	3(0.4)	0(0.0)	5(0.7)	0(0.0)	9(0.2)
계	540	798	795	713	770	3616

〈표 4〉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주제세분 분포도

주제명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자료조직	분류		23(4.3)	24(3.0)	39(4.9)	18(2.5)	28(3.6)	132(3.7)
	편목		20(3.7)	29(3.6)	33(4.1)	18(2.5)	30(3.9)	130(3.6)
	MARC포맷		5(0.9)	1(0.1)	2(0.3)	5(0.7)	2(0.2)	15(0.4)
도서관경영 관리	장서개발		4(0.7)	26(3.2)	29(3.6)	17(2.4)	21(2.7)	97(2.7)
	관종별도서관운영		42(7.8)	113(14.2)	46(5.8)	49(6.9)	58(7.5)	308(8.5)
	대출관리		1(0.2)	1(0.1)	1(0.1)	2(0.3)	0(0.0)	5(0.1)
정보서비스	도서관서비스		4(0.7)	9(1.1)	12(1.5)	13(1.8)	9(1.2)	47(1.3)
	참고정보서비스		38(7.0)	69(8.6)	48(6.0)	22(3.1)	37(4.8)	214(5.9)
	전자정보서비스		3(0.6)	2(0.2)	8(1.0)	9(1.3)	19(2.5)	41(1.1)
	서비스평가측정		24(4.4)	32(4.0)	20(2.5)	17(2.4)	17(2.2)	110(3.0)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원		12(2.2)	1(0.1)	4(0.5)	15(2.1)	3(0.4)	35(1.0)
	전문직		6(1.1)	70(8.8)	35(4.4)	16(2.2)	28(3.6)	155(4.3)
	정보사회면		6(1.1)	16(2.0)	8(1.0)	10(1.4)	28(3.6)	68(1.9)
	법적인면(저작권)		6(1.1)	6(0.7)	2(0.3)	16(2.2)	5(0.6)	35(1.0)
	교육관련		5(0.9)	70(8.8)	39(4.9)	22(3.1)	34(4.4)	170(4.7)
연구방법론	계량서지학		2(0.4)	3(0.4)	4(0.5)	4(0.6)	1(0.1)	14(0.4)
	이용자연구		28(5.2)	20(2.5)	29(3.6)	29(4.1)	27(3.5)	133(3.7)
	사회학적연구		8(1.5)	1(0.1)	3(0.4)	5(0.7)	8(1.0)	25(0.6)
정보생성	출판유통		0(0.0)	9(1.1)	6(0.7)	12(1.7)	0(0.0)	27(0.7)
	커뮤니케이션		3(0.6)	3(0.4)	5(0.6)	8(1.1)	5(0.6)	25(0.6)
	전자출판		7(1.3)	6(0.7)	6(0.7)	13(1.8)	5(0.6)	37(1.0)

주제명		년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정보인식	언어학	2(0.4)	0(0.0)	6(0.7)	10(1.4)	4(0.5)	22(0.6)
	인공지능	3(0.6)	2(0.3)	4(0.5)	8(1.1)	3(0.4)	20(0.6)
	인용분석	25(4.6)	16(2.0)	19(2.4)	67(9.4)	14(1.8)	141(3.9)
	색인초록	21(3.9)	8(1.0)	17(2.1)	7(1.0)	15(1.9)	68(1.9)
	문자패턴인식	1(0.2)	3(0.4)	0(0.0)	6(0.9)	2(0.2)	12(0.3)
정보처리	파일설계	15(2.8)	13(1.6)	16(2.0)	29(4.1)	9(1.2)	82(2.3)
	정보검색	48(8.9)	26(3.2)	47(5.9)	48(6.7)	35(4.5)	204(5.6)
	온라인탐색	30(5.6)	17(2.1)	28(3.5)	15(2.1)	29(3.8)	119(3.3)
	OPAC	20(3.7)	20(2.5)	98(12.3)	15(2.1)	37(4.8)	190(5.3)
	Web자원	5(0.9)	25(3.1)	11(1.4)	27(3.8)	47(6.1)	115(3.2)
	인터넷	6(1.1)	26(3.2)	14(1.8)	20(2.8)	59(7.7)	125(3.5)
	인터페이스	5(0.9)	22(2.7)	10(1.3)	14(1.9)	17(2.2)	68(1.9)
	축적	0(0.0)	2(0.3)	2(0.3)	1(0.1)	4(0.5)	9(0.2)
검색시스템평가측정	47(8.7)	21(2.6)	46(5.8)	43(6.0)	41(5.3)	198(5.5)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상호협력)	12(2.2)	43(5.4)	34(4.3)	21(2.9)	26(3.4)	136(3.8)
	데이터베이스	9(1.7)	9(1.1)	22(2.8)	19(2.7)	20(2.6)	79(2.2)
	색인초록서비스	7(1.3)	3(0.4)	1(0.1)	15(2.1)	4(0.5)	30(0.8)
	시스템응용	15(2.8)	2(0.3)	7(0.9)	9(1.3)	5(0.6)	38(1.0)
	전자도서관	21(3.9)	26(3.2)	33(4.1)	14(1.9)	34(4.4)	128(3.5)
서지학	서지학일반	1(0.2)	3(0.4)	0(0.0)	5(0.7)	0(0.0)	9(0.2)
계	합계	540	798	795	713	770	3616

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1993~1997)를 대상으로 한 조찬식의 연구에서는 분류, 목록 및 색인, 정보검색 등을 포함한 정보조직 및 검색분야가 42.1%, 정보봉사 및 관련활동이 18.5%로 나타났고 세분된 주제에서는 정보검색이 15.5%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은경은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를 대상으로 1984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2년 간격을 두어 세기간으로 나누고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학분야의 주요 주제영역은 정보시스템 응용분야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시스템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가

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984년 이후부터 지난 2000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요 관심영역은 정보검색과 시스템평가측정 및 서비스분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결과를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6년도에는 정보검색이 8.9%, 검색시스템 평가측정 8.7%, 관중별 도서관운영과 참고정보서비스가 7.8%와 7.0%로 비교적 고른 성향을 보여 주었다. 1997년도는 도서관 관중별 운영이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서비스가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8년도에 들어서는 OPAC분

야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9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주제는 인용분석이 9.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관리 운영과 정보검색, 검색시스템 평가측정으로 정보처리에 해당되는 주제들이다. 2000년도에는 인터넷과 웹 자원에서 7.7%와 6.1%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도서관 관리운영, 검색시스템 평가, 정보서비스에서도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문헌정보학분야와 정보학분야로 나누어 년도별로 구분해 보면 문헌정보학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도서관 자동화와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인공지능 관련연구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색인 및 검색기법과 시스템구축에 관련된 연구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보검색 및 시스템평가측정과 OPAC 등의 정보처리영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인용분석과 이용자연구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서비스와 웹, 전자출판, 저작권, 이용자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항목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영역 이동에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웹이나 인터넷, 저작권과 같은 주제영역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타 학문분야의 주제의존도 분석

인용문헌을 통하여 관련된 타 학문의 주제

의존도를 분석하므로 학문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학문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제 의존도는 <표 5>에서와 같이 문헌정보학 4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정보학이 40.0%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전산학은 5.7%, 교육학 2.0%, 경영경제 1.1%에 불과했으며, 그이외의 학문은 9% 정도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의학(1.0%)과 행정(0.5%), 음악(0.3%), 통신정책(0.2%) 및 보건 등에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문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한 시기와 또 그 대상으로 선정된 학문분야의 규모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운경에 의해 조사된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정보학에서 문헌정보학에 대한 의존도가 26%에 불과한데 비해 본 연구의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문헌정보학에서 정보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년도별에서는 1996년에는 정보학 44.0%, 문헌정보학 37.4%, 전산학 9.3%, 커뮤니케이션 2.4%순이며, 그 이외의 학문은 7% 정도로, 1997년은 문헌정보학 56.6%, 정보학 27.4%로 전년도와 상반된 양상을 보였으며, 전산학과 교육학에 4.8%와 4.1%의 의존도를 보였다. 1998년에는 문헌정보학 39.2%, 정보학 44.4%로 문헌정보학에 비해 정보학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전산학, 교육학, 사회과학, 행정과 음악분야에서도 빈도수는 매우 미미하나 조금씩 인용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1999년에서도 정보학이 51.1%로 문헌정보학의 38.9%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산학 4.5%, 커뮤니케이션 1.2%, 의학에서도 1.2%가 활용되었다. 2000년은 문헌정보학 47.1%인데 비해

〈표 5〉 학회지에 인용된 학술잡지의 주제영역별 분포도

주제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잡지(%)	빈도(%)	잡지(%)	빈도(%)	잡지(%)	빈도(%)	잡지(%)	빈도(%)	잡지(%)	빈도(%)	잡지수(%)	빈도수(%)
문헌정보학	21(38.2)	200(37.4)	25(39.7)	446(56.6)	29(42.6)	314(39.2)	13(32.5)	265(38.9)	22(32.8)	378(47.1)	36(28.3)	1,603(44.4)
정보학	19(34.5)	235(44.0)	12(19.0)	216(27.4)	17(25.0)	356(44.4)	12(30.0)	348(51.1)	21(31.3)	289(36.0)	28(22.0)	1,444(40.0)
전산학	4(7.3)	50(9.3)	8(12.7)	38(4.8)	6(8.8)	35(4.4)	3(7.5)	31(4.5)	5(7.5)	51(6.4)	16(12.6)	205(5.7)
커뮤니케이션	2(3.6)	11(2.4)	1(1.6)	3(0.4)	1(1.5)	1(0.1)	2(5.0)	8(1.2)	1(1.5)	5(0.6)	4(3.1)	28(0.8)
서지학	0(0)	0(0)	0(0)	0(0)	0(0)	0(0)	1(2.5)	3(0.4)	1(1.5)	4(0.5)	2(1.6)	7(0.2)
경영/경제	1(1.8)	4(0.7)	1(1.6)	5(0.6)	2(2.9)	11(1.4)	1(2.5)	1(0.1)	3(4.5)	19(2.4)	4(3.1)	40(1.1)
일반과학	1(1.8)	5(0.9)	2(3.2)	12(1.5)	2(2.9)	13(1.6)	0(0)	0(0)	1(1.5)	3(0.4)	2(1.6)	33(0.9)
사회학	2(3.6)	11(2.0)	1(1.6)	4(0.5)	0(0)	0(0)	1(2.5)	2(0.3)	1(1.5)	13(1.6)	2(1.6)	30(0.8)
교육학	1(1.8)	4(0.7)	3(4.7)	32(4.1)	2(2.9)	19(2.4)	1(2.5)	4(0.6)	2(3.0)	12(1.5)	5(3.9)	71(2.0)
심리학	1(1.8)	2(0.4)	2(3.2)	7(0.9)	1(1.5)	8(1.0)	1(2.5)	6(0.9)	0(0)	0(0)	3(2.4)	23(0.6)
공학	1(1.8)	4(0.7)	0(0)	0(0)	1(1.5)	5(0.6)	0(0)	0(0)	1(1.5)	1(0.1)	1(0.8)	10(0.3)
통계학	0(0)	0(0)	0(0)	0(0)	0(0)	0(0)	0(0)	0(0)	1(1.5)	1(0.1)	1(0.8)	1(0.0)
의학	1(1.8)	2(0.4)	2(3.2)	6(0.8)	1(1.5)	10(1.2)	2(5.0)	8(1.2)	2(3.0)	9(1.1)	5(3.9)	35(1.0)
언어학	0(0)	0(0)	0(0)	0(0)	0(0)	0(0)	1(2.5)	2(0.3)	1(1.5)	1(0.1)	1(0.8)	3(0.0)
행정학	0(0)	0(0)	0(0)	0(0)	2(2.9)	11(1.4)	0(0)	0(0)	1(1.5)	6(0.7)	2(1.6)	17(0.5)
음악	0(0)	0(0)	0(0)	0(0)	1(1.5)	10(1.2)	0(0)	0(0)	0(0)	0(0)	1(0.8)	10(0.3)
통신정책	0(0)	0(0)	0(0)	0(0)	0(0)	0(0)	0(0)	0(0)	2(3.0)	6(0.7)	2(1.6)	6(0.2)
보건학	0(0)	0(0)	0(0)	0(0)	1(1.5)	1(0.1)	1(2.5)	1(0.1)	0(0)	0(0)	1(0.8)	2(0.0)
기타	1(1.8)	6(1.1)	6(9.5)	19(2.4)	2(2.9)	7(0.9)	1(2.5)	2(0.3)	2(3.0)	5(0.6)	11(8.7)	39(1.1)
합계	55	534	63	788	68	801	40	681	67	803	127	3,607

정보학은 전년도에 비해 문헌정보학 보다 낮은 36.0%를 보였다. 전산학 6.4%, 경영경제 2.4%로 분석되었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학문헌에 대한 의존도는 1996, 1998, 1999년도에는 44.0%, 44.4%, 51.1%로 점차 높아지는 듯 하였으나 1997년과 2000년도에는 27.4%, 36.0%로 다소 낮아졌다.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정보학 문헌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는 상호 뚜렷한 구분 없이 교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동향 분석에 인용된 잡지 종수는 문헌정보학분야가 36종, 정보학분야 28종, 전

산학분야는 16종이 인용되었다. 빈도수를 잡지 종수와 비교해 볼 때 정보학이 문헌정보학 보다 잡지종수는 적으면서도 빈도수에서는 정보학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특히 1996, 1998, 1999년) 소수의 핵심잡지가 집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에서는 인용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수가 국외 잡지는 4회 이상, 국내 잡지는 2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인용된 학술잡지의 빈도수를 보면 JASIS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핵심잡지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잡지의 영역별로는 문헌정보학 관련 잡

〈표 6〉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 순위(빈도수)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1.	JASIS(62)	CRL(63)	JASIS(88)	JASIS(88)	JASIS(45)
2.	IPM(23)	JASIS(48)	CRL(43)	JD(37)	LISR(38)
3.	CRL(21)	LT(41)	ITL(32)	IPM(36)	IPM(33)
4.	CACM(17)	LQ(31)	IPM(27)	JIS(20)	SL(26)
5.	ARIST(16)	LISR(29)	LT(25)	S(20)	CRL(23)
6.	CCQ(12)	JAL(27)	RQ(23)	LISR(18)	LT(20)
7.	JAL(11)	JLA(27)	JD(21)	LT(13)	JLA(18)
8.	OR(11)	OR(23)	LJ(19)	LQ(13)	Online(17)
9.	Online(10)	RQ(18)	Online(18)	CRL(12)	JD(13)
10.	LQ(10)	JD(15)	CCQ(17)	LJ(10)	JAL(12)
11.	AD(9)	JELIS(15)	LISR(15)	SSS(10)	ARIST(9)
12.	LRTS(8)	CCQ(12)	JAL(14)	CCQ(9)	CACM(9)
13.	I&M(7)	IPM(11)	AP(11)	CACM(9)	EL(9)
14.	AP(6)	JCC(11)	LRTS(9)	ITL(7)	CL(8)
15.	S(6)	LRTS(11)	LQ(9)	RQ(5)	RSR(6)
1.	JKSIM(30)	JKSLIS(54)	JKSLIS(58)	JKSIM(52)	JKSLIS(97)
2.	JKSLIS(23)	JKSIM(25)	JKSIM(30)	JKSLIS(42)	JKSIM(57)
3.	신문과방송(8)	도서관(18)	도서관(18)	도서관(7)	도서관(23)
4.	도서관(7)	국회도서관(17)	도협월보(14)	국회도서관(5)	도서관문화(20)
5.	도서관문화(6)	도서관문화(14)	국회도서관(10)	도서관문화(5)	JKLISS(18)

* AD: American Documentation
 JLA: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LIS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J: Library Journal
 LT: Library Trends
 OR: Online Review
 S: Scientometrics
 JKSLI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JKSIM: 정보관리학회지

지가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학 관련 잡지는 27.7%로 전산학 관련 잡지도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관련 핵심잡지에서 국외 잡지는 College and Research Library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ibrary Trends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 잡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비롯해서 이외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

만 도서관, 도서관문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정보학분야의 국외 핵심잡지로는 JASIS와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등이며, 국내 잡지로는 정보관리학회지를 들 수 있다. 전산학분야에서는 CACM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며, 계량서지학분야의 Scientometrics는 1999년에는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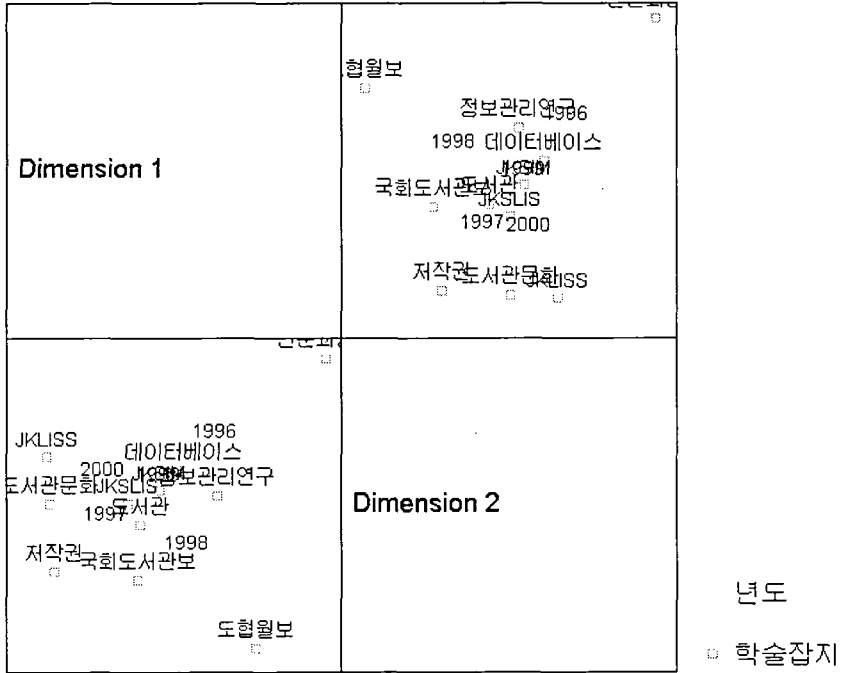
권 그룹의 핵심잡지에 포함되었으나, 2000년에는 매우 미미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계량서지학에 관한 연구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쉬운 것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학회지를 비롯한 학술잡지의 종수가 너무 부족한 관계로 상·하위간 학술지의 구별에서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 문헌의 상위 10위권 잡지에서는 JASIS를 제외한 각 순위 간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5.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구조와 주제영역별 변화 분석

학제적 구조 변화를 분석하므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 주제영역은 무엇이며, 주제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새롭게 생성된 영역은? 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문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19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339편의 논문에서 인용된 잡지의 영역별 변화를 <그림 2와 3>에서는 5년 동안의 인용된 잡지 전체를 한데 묶어 국내와 국외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 4>에서 <그림 8>까지는 국내와 국외 잡지를 한데 묶어 년도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유는 SPSS의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으로 처리한 <그림 2와 3>이 각 년도에 해당되는 잡지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림 4에서 8>까지의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그림 2와 3>을 중심으로 하고 <그림 4에서 8>은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국내잡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문헌정보학과 정보관리, 매스컴의 세 가지 주제영역으로 구분된다. 정보학분야인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중앙에 핵심영역으로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관리 영역인 도서관과 정보관리연구가 주변영역으로 아래쪽에 근접해 있으며, 매스컴의 신문과 방송이 관련영역으로 인접하고 있다. 국외잡지의 경우는 정보학의 JASIS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와 인접해서 문헌정보학 영역이 밀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의 우측 주변으로는 정보학 영역의 잡지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전산학을 포함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핵심주제 잡지인 JASIS를 제외한 정보학 영역의 IPM과 문헌정보학의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전산학의 CACM이 중심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의 주변영역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계량서지학 분야의 Scientometrics가 주변영역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응용논문들을 다루는 잡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크게 두 개의 주제영역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그 옆에 정보관리학회지가 인접해 있으며, 문헌정보학분야의 도서관과 도서관문화, 정보학분야의 정보관리가 서로 밀접하게 주변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생성주제인 저작권이 관련영역으로 위치하고 있다. 국외잡지의 경우는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중앙의 핵심부분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Online Review,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Library Quarterly, Library Trends, Reference Quarterly,

국내 학술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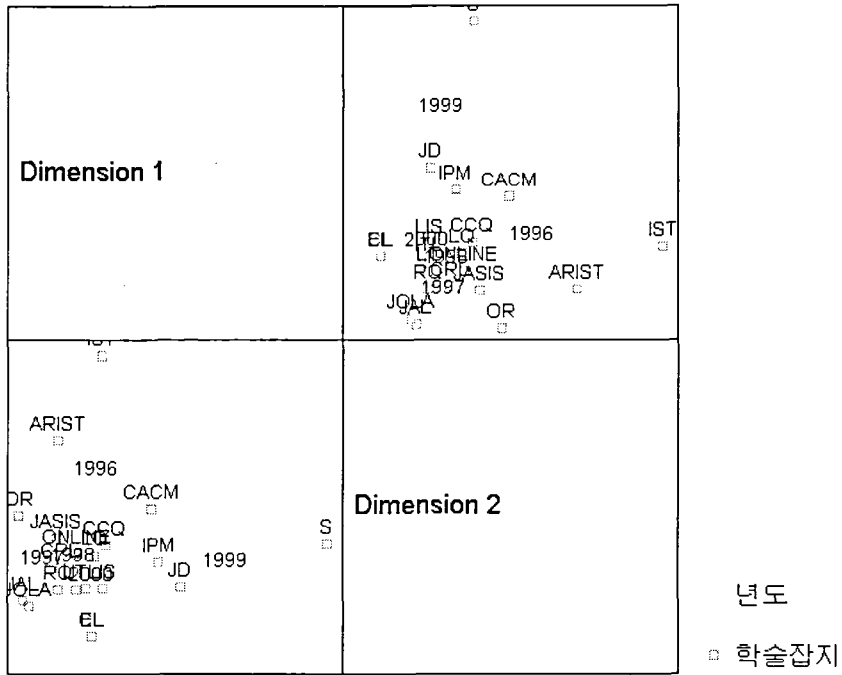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학술잡지의 주제영역 분포도

〈표 7〉 국내잡지의 통계분석표

통계분석표								
Dimension	Singular Value	Inertia	Chi Square	Sig.	Proportion of Inertia		Confidence Singular Value	
					Accounted for	Cumulativ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1	.402	.161			.343	.343	.026	.437
2	.385	.148			.316	.659	.029	
3	.290	.084			.179	.838		
4	.276	.076			.162	1.000		
Total		.470	307.768	.000 ^a	1.000	1.000		

a. 40 degrees of freedom.

해외학술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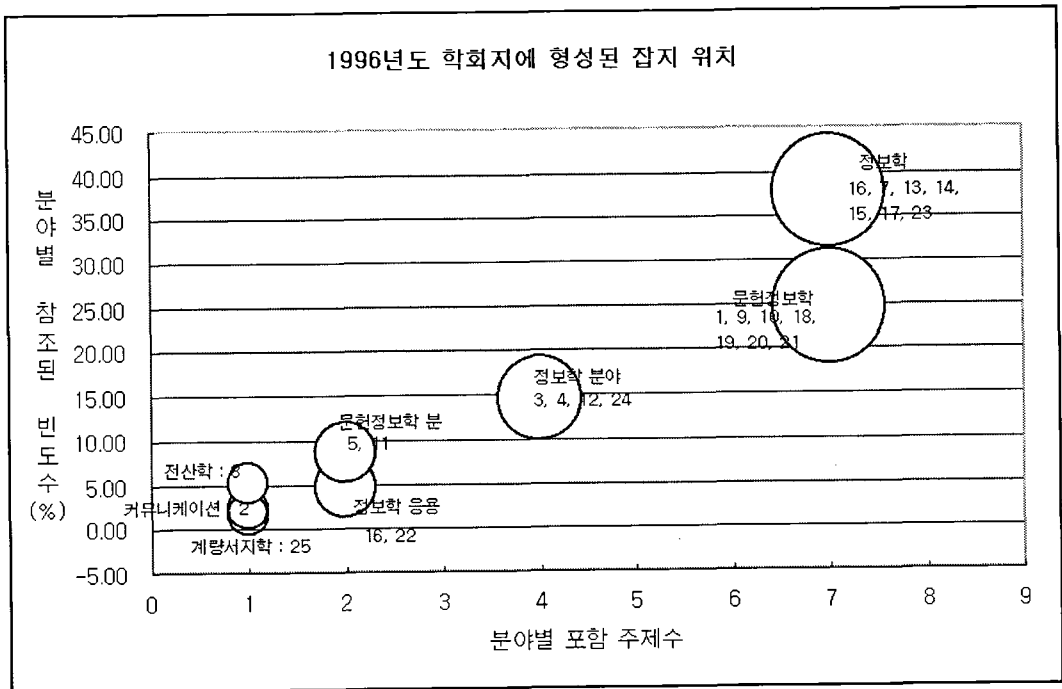


〈그림 3〉 국외 학술잡지의 주제영역 분포도

〈표 8〉 국외잡지의 통계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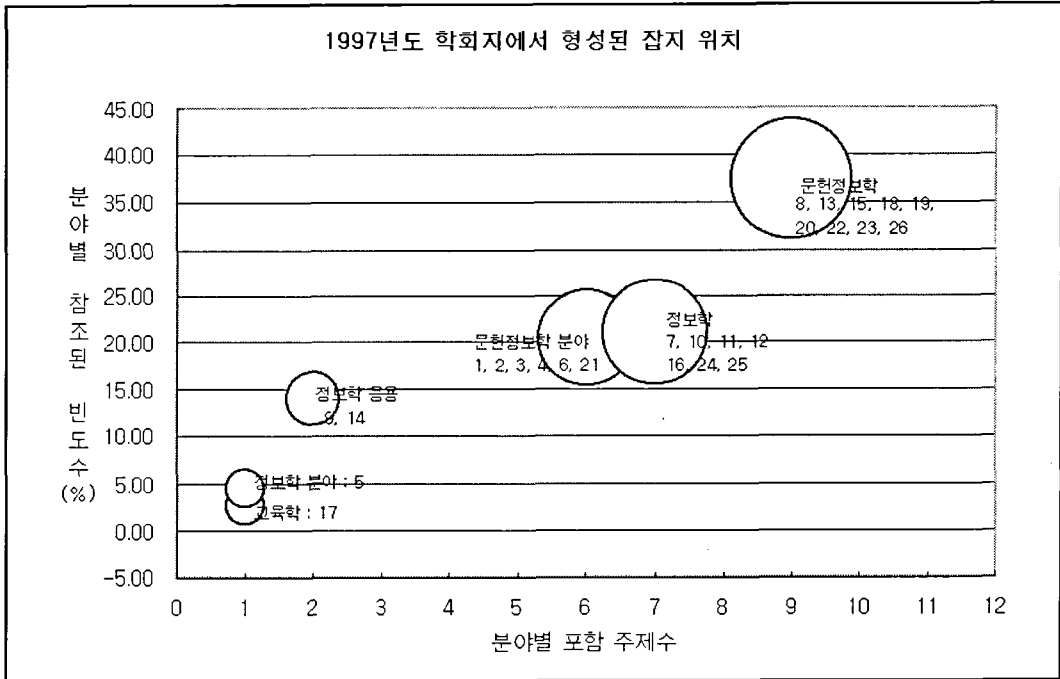
통계분석표								
Dimension	Singular Value	Inertia	Chi Square	Sig.	Proportion of Inertia		Confidence Singular Value	
					Accounted for	Cumulativ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2
1	.441	.194			.351	.351	.026	-.070
2	.371	.138			.249	.600	.026	
3	.362	.131			.237	.837		
4	.300	.090			.163	1.000		
Total		.553	757.977	.000 ^a	1.000	1.000		

a. 76 degrees of free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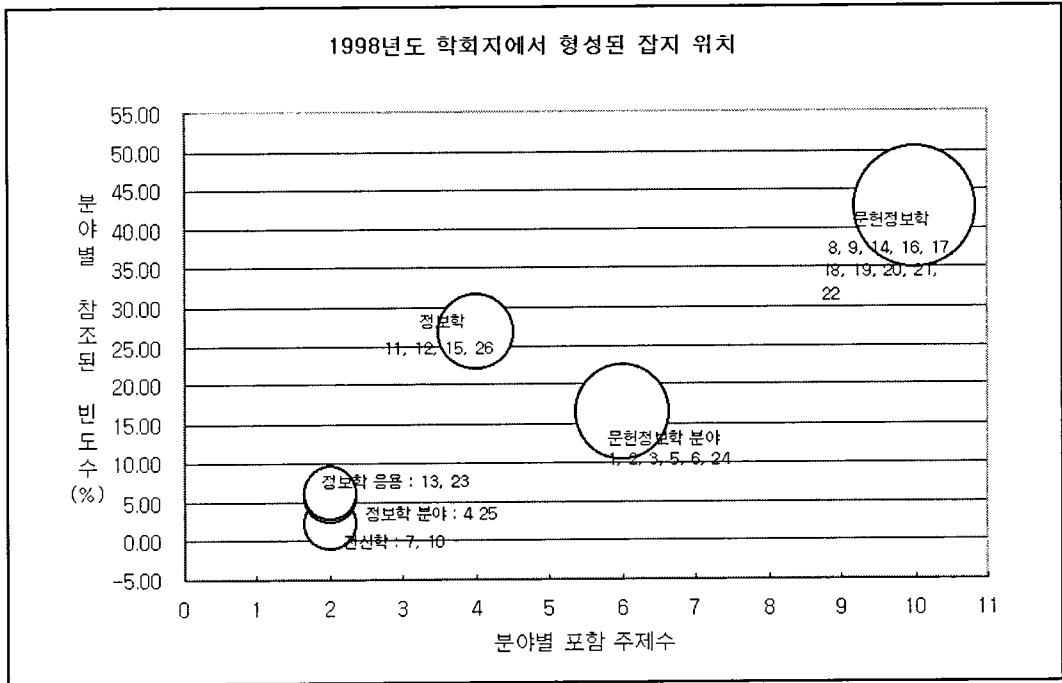
- | | |
|-------------------------------|------------------------------|
| 1. 도서관 | 14. Inf. Storage & Retrieval |
| 2. 신문과 방송 | 15. JASIS |
| 3. 정보관리연구 | 16. J. of Academic Libsh. |
| 4. 정보관리학회지 | 17. J. of Documentation |
|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8. Lib. & Inf. Sci. Resch. |
| 6. ARIST | 19. Library Trends |
| 7. American Documentation | 20. Library Quarterly |
| 8. CACM | 21. Lib. Res. & Tech. Ser. |
| 9. CCQ | 22. Online |
| 10. College and Research Lib. | 23. Online Review |
| 11. IPM | 24. Proceedings |
| 12. IFLA Journal | 25. Scientometrics |
| 13. Inf. & Management | |

〈그림 4〉 1996년도 학회지에서 형성된 잡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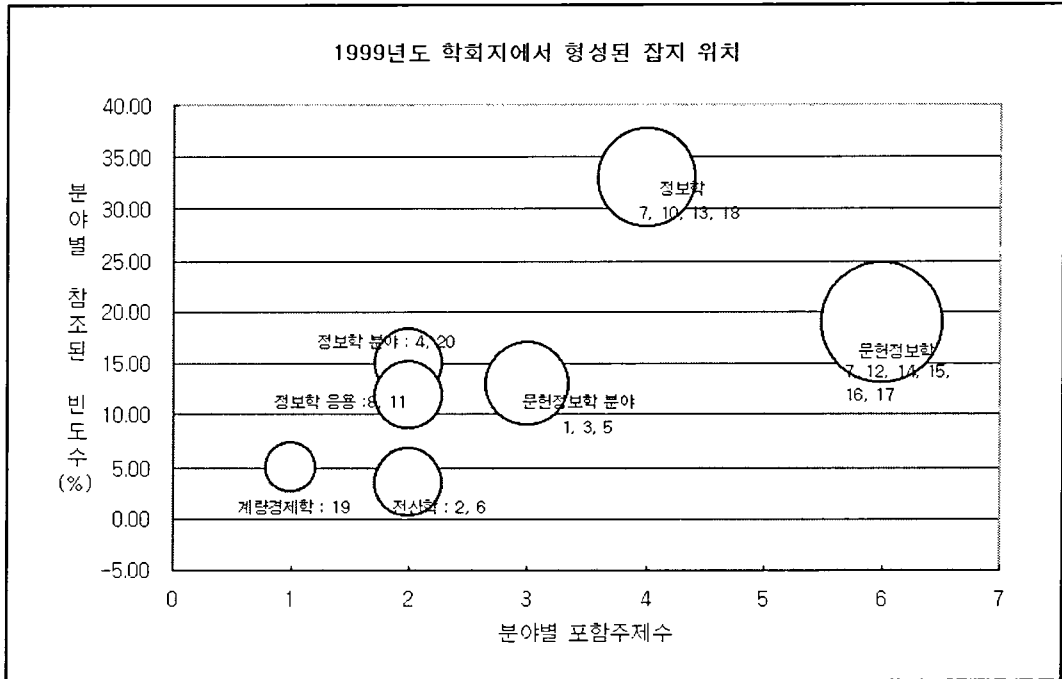
- | | |
|----------------------------|-----------------------------|
| 1. (계간)저작권 | 14. J. of Academic Libsh. |
| 2. 국회도서관보 | 15. J. of Documentation |
| 3. 도서관 | 16. J. of Cat. & Class. |
| 4. 도서관문화 | 17. J. of Lib. Admin. |
| 5. 정보관리학회지 | 18. J. of Librarianship |
| 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9. Lib. & Inf. Sci. Resch. |
| 7. ARIST | 20. Library Journal |
| 8. CCQ | 21. Library Quarterly |
| 9. College & Research Lib. | 22. Lib. Res. & Tech. Ser. |
| 10. IPM | 23. Library Trends |
| 11. Inf. Tech. & Libraries | 24. Online Review |
| 12. JASIS | 25. RQ |
| 13. JELIS | 26. Special Libraries |

〈그림 5〉 1997년도 학회지에서 형성된 잡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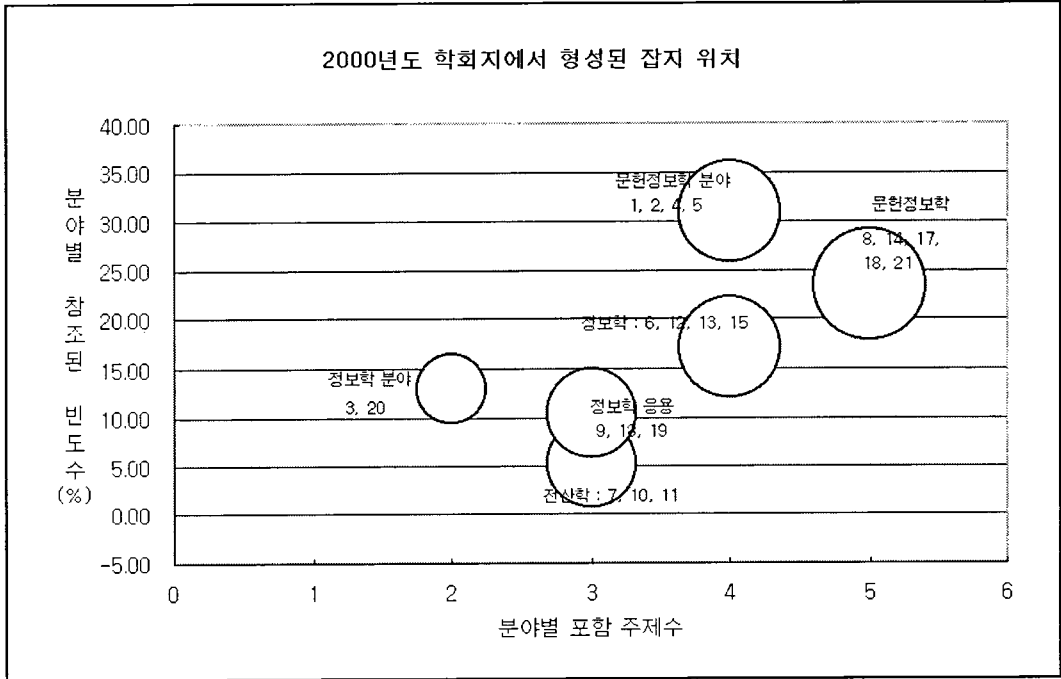
- | | |
|------------------------------|----------------------------------|
| 1. 국회도서관보 | 14. J. of Academic Librarianship |
| 2. 도서관 | 15. J. of Documentation |
| 3. 도협월보 | 16. J. of Librarianship |
| 4. 정보관리학회지 | 17. J. of Lib. Administration |
|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8. Lib. & Inf. Sci. Res. |
| 6. Aslib Proceedings | 19. Library Journal |
| 7. CACM | 20. Library Quarterly |
| 8. CCQ | 21. Lib. Res. & Tech. Ser. |
| 9. College and Research Lib. | 22. Library Trends |
| 10. Database | 23. Online |
| 11. IPM | 24. RQ |
| 12. Inf. Tech. & Lib. | 25. Reference Librarian |
| 13. JASIS | 26. Reference Services Review |

〈그림 6〉 1998년도 학회지에서 형성된 잡지 위치



- | | |
|----------------------------|-------------------------------|
| 1. 국회도서관보 | 11. JASIS |
| 2. 도서관 | 12. J. of Documentation |
| 3. 데이터베이스 월드 | 13. J. of Inf. Science |
| 4. 정보관리학회지 | 14. Lib. & Inf. Sci. Resch. |
|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5. Library Quarterly |
| 6. CACM | 16. Library Trends |
| 7. CCQ | 17. Public Libraries |
| 8. College & Research Lib. | 18. RQ |
| 9. IPM | 19. Scientometrics |
| 10. Inf. Tech. & Lib. | 20. Social Studies of Science |

〈그림 7〉 1999년도 학회지에서 형성된 잡지 위치



- | | |
|----------------------------|----------------------------------|
| 1. 도서관 | 12. IPM |
| 2. 도서관문화 | 13. JASIS |
| 3. 정보관리학회지 | 14. J. of Academic Librarianship |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15. Journal of Documentation |
| 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6. J. of Library Administration |
| 6. ARIST | 17. Lib. & Inf. Sci. Resch. |
| 7. CACM | 18. Library Trends |
| 8. CCQ | 19. Online |
| 9. College & Research Lib. | 20. Reference Services Review |
| 10. Computers in Libraries | 21. Serials Librarian |
| 11. Electronic Library | |

〈그림 8〉 2000년도 학회지에서 형성된 잡지 위치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등의 문헌정보학 잡지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학은 JASIS가 중앙의 위쪽에 IPM과 Journal of Documentation이 아래쪽에 대칭을 이루고 있을 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98년은 한국문헌정보학회와 정보관리학회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좌측 주변에 문헌정보학 관련영역으로 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보관리연구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문헌정보학회가 핵심잡지임을 알 수 있다. 종래 도서관학분야의 도협월보가 좌측 우변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중앙에 정보학의 JASIS를 기점으로 그 상하에 문헌정보학 영역의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Library Tren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Quarterly 등과 정보학 영역의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ies, IPM, Journal of Documentation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JASIS가 주요 핵심영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년도에 핵심영역으로 부상했던 문헌정보학의 CRL은 중심영역으로 이동되는 저조한 형상을 보였다. 주변영역으로는 정보학 관련분야인 전산학의 CACM과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이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1999년에는 중앙에 정보학이 그 아래로 문헌정보학 영역이 위치하고 있고, 정보관리영역과 문헌정보학 그리고 새롭게 부상되는 전산학영역이 다이아몬드형의 주변영역을 이루면서 상호관련성이 높음

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99년의 영역분포에서는 정보학의 IPM과 Journal of Documentation이 핵심영역으로 부각되었으며, 1998년에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계량서지학의 Scientometrics가 핵심주제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Library & Information Science와 Library Trends, Library Quarterl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정보학의 IPM과 Journal of Documentation의 아래쪽에 중심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주변영역으로는 전산학의 CACM과 문헌정보학의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가 그리고 중앙하단 아래에 Reference Quarterly가 위치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보학의 주요 핵심영역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JASIS가 단 한번도 인용되지 않은 기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문의 흐름은 정보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문헌정보학은 포함된 주제수는 많으나 인용빈도가 대체로 낮았고 정보학분야는 포함된 잡지의 수는 적지만 인용빈도가 높은 잡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을 보면 문헌정보학분야인 문헌정보학회가 주요 핵심영역으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로 위쪽에 정보학분야의 정보관리학회지가 중심영역으로 인접해 있다. 중앙의 좌측위로는 새롭게 생성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가 아래쪽으로는 문헌정보학의 도서관과 도서관문화가 삼각형 모양의 주변영역을 이루고 있다.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문헌정보학회가 주요 핵심영역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외잡지에서는 문헌정보학의 College & Research Libraries와

정보학의 JASIS 및 IPM이 주요 핵심주제영역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Library of Information Science와 Library Trends 그리고 정보학 관련분야의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과 Journal of Documentation, Online이 중심영역으로 핵심주제와 함께 중심부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학 관련분야인 전산학의 Electronic Library와 Computers in Libraries가 인용빈도 수는 적지만 문헌정보학의 중심영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논제가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핵심영역이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으로 교차되고 있어 두 주제 영역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잡지의 경우 핵심영역과 주변영역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 문헌정보학에는 응용학문과 이론영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국외 학술지에서 밝혀진 주요 핵심주제영역은 정보학의 JASIS와 IPM, 문헌정보학에서는 CRL과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JASIS가 1997년에는 문헌정보학의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로 1999년에는 정보

학의 IPM으로 핵심잡지의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 새롭게 생성된 학문으로는 1996년에 계량서지학분야의 Scientometrics가 2000년에는 정보학관련 전산학인 Electronic Library와 Computers in Libraries로 활발한 교류에 의한 중심 주제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자들은 한국어 문헌에 비해 영어권 문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적 이론의 빈곤과 연구방법론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정기간행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학회지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웹 자원의 인용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핵심주제영역은 정보학 분야의 정보검색과 검색시스템평가측정, OPAC, 웹 자원,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처리 영역이 가장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

〈표 9〉 주제영역의 년도별 변화 요약

	1996	1997	1998	1999	2000
주요핵심영역	정보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정보학	문헌정보학

혀졌다. 세분화된 영역에서는 문헌정보학의 관중별 도서관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학 관련분야의 참고정보서비스와 정보검색, 시스템평가측정 등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타 학문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문헌정보학의 자기인용이 44.4%인데 비해 정보학(40.0%), 전산학(5.7%)순이며, 의학과 행정, 음악, 통신정책, 보건분야 등에서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헌정보학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헌정보학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술 잡지는 JASIS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IPM, CRL 등으로 이들은 지적구조와 영역별 변화 분석에서도 중앙의 핵

심영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헌정보학분야의 주요 핵심주제 영역은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이 교차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보학 관련분야인 전산학(CACM, Computers in Libraries 등)이 주변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되기 시작한 주제는 아니지만 저작권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서은경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정보학을 중심으로 한 정보이론과 응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학과 문헌정보학의 학문의 틀에는 큰 변화와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구본영. 1996.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 김성희. 2000.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타당도 및 신뢰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176-187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배순자. 2001.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124-140
- 사공철, 박성민. 1994. 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125-160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70-290
- 신동민. 1996.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1): 84-96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제5차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1-22
- 조찬식. 1999.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1-65

- 신동민. 1996.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1): 84-96
- 정동열. 1992.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정필모. 2001. 『문헌정보학원론』. 제4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최희곤. 1999.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6(4): 138-156.
- _____. 2001. 국제학술지(SS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 분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6-20.
- 推名六郎. 昭和35(1960). 『도서관학개론』. 동경: 학예도서(주)
-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15(1): 115-139
- Atkins, S.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1): 633-658
- Borko, H. 1968. "Information Science," *American Documentation*, 13(1): 3-5
- Busha, C. H. & Harter, S. P. 1980.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techniques & interpret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7
- Egan, M. E. 1955. "The Library & Social Structure," *Library Quarterly*, 25(1): 15-22
- Feehan, P. E. et al. 1987.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 analysis of the 1984 Journal Literatur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2): 173-185
- Grover, R. & J. Glazier. 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8: 227-242
- Houser, L. "A Conceptual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0(1): 3-34
- Hoyt, R. H. 1969. "A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American Documentation*, 20(3): 358-361
- Jaervelin, K. &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Lynch, M. J. 1984. "Research & Librarianship: an uneasy connection," *Library Trends*, 32(4): 367-383
- Martyn, J. & Lancaster, F. W. 1981. *Investigative Metho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 introduction*. Arlington, VA: Information Resources Pr. : 193
- Taylor, R. S. 1966.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in C. A. Cuanda(ed)," *ARIST*, 1(4)